

보도자료

보도일시 [지면보도] 2022년 9월 7일 (수) 조간부터
[인터넷 기사] 2022년 9월 6일 (화) 12:00이후 가능

[연구관련]
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
(044-287-6405, parksj@kli.re.kr)
담 당 자 김홍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
(044-287-6035, hjkim88@kli.re.kr)

김기웅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
(044-287-6571, kiwoong913@kli.re.kr)

배포일시 2022년 9월 6일 (화) 09:00

유망식품 육성정책의 고용효과

- 본 연구는 2019년 12월 4일 발표된 『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』이 식품산업성장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

1. 식품산업 현황

- 2019년 국내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126.5조원(매출액 기준)
 - 2019년 현재 62,329개 사업장에 374,807명이 종사
 - 식제품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인구 및 소득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
 -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

*총산출액: 2010(5.8%) → 2019(7.9%), 매출액: 2016(6.4%) → 2019(6.7%)

<표 1> 식품산업 종사자 및 매출관련 지표

	2010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체(개)	54,050	57,954	59,171	60,089	61,620	62,329
종사자(명)	277,331	331,564	343,247	346,021	362,090	374,807
매출액(십억원)	-	-	108,561	114,111	122,132	126,462
총산출액(십억원)	87,240	112,899	114,210	119,385	124,252	128,603
생산액(십억원)	17,372	20,344	20,281	21,067	21,679	22,502

자료: 통계청(전국사업체조사), 한국은행(국민계정)

2. 식품산업 관련 정책 추이

- 『식품산업진흥법(2007. 12. 27 제정)』에 의거해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추진
 - 2008년 제1차 계획, 2012년 제2차 계획에 이어 2018년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정책 추진중임
 - 3차 진흥계획에서 가정간편식(HMR)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제적 육성,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미래유망식품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
-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으로 식품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, 해외인지도 향상, 소비트렌드 변화 등 우호적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미래 유망식품에 집중한 정책 추진 필요성 제기
 - 정부는 2019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『식품산업활력제고대책』을 수립·발표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
 - 활력대책은 식품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(맞춤형·특수식품, 기능성식품, 간편식품, 친환경식품, 수출식품)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제고,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

3. 식품소비 트렌드변화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

- 식품산업은 제품 특성상 인구 및 소득증가율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음
 -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및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식품산업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
 - 그러나 1인가구 증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온라인유통 활성화,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

- 식생활을 통한 웰빙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증가,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맞춤형 식품 및 간단하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편의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기능성 식품, 맞춤형·특수식품, 간편식품, 친환경식품 시장 성장
-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소비트렌드 변화의 주 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령화, 1인가구, 맞벌이, 기후환경, 식품사고 등 영향요인이 다양해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행태 변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향후 식품산업 구조는 더욱 빠르게 변모할 것임

4. 식품산업 정책 시나리오별 고용전망

- 식품산업을 유망식품과 관련이 높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분류한 후 2015~2019년까지 성장률을 산정
 - 비유망식품은 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공통으로 적용
 - 유망식품은 성장률에 기반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
 - *시나리오1: 활력대책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이용함, 두 값을 로그차분해 4로 나눈 값(약 7.4%)을 유망식품 관련 업종에 적용
 - 시나리오2: 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 중 최저 성장률을 적용
 - 시나리오3: 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
-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적용해 2023년 시장규모(매출액)를 전망
 - 추정 매출액에 취업계수(100억원당 종사자수)를 이용해 2023년 기준 고용량을 추정
 - 추정결과 2023년 고용인원은 421.7천7명~440.0명
 - 2013~2019년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유망식품 육성정책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이중차분 분석결과 나타난 고용효과 추정치를 적용하면 정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는 4.9~5.9천명
- 고용의 질(상용직, 여성/청년층 고용, 임금수준, 근로시간 등) 변화가능성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
 - 정성평가 결과 단기간에 고용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<표 2> 시나리오별 2023년 고용인원 전망치

	시나리오 1	시나리오 2	시나리오 3
고용량(천명)	421.7	428.2	440.0
고용효과(천명)	4.9	5.2	5.9

5. 식품산업 활성화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

○ 식품산업 활성화 정책 평가

- 데이터 한계로 활력대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, 제조업에 비해 식품산업의 매출액, 종사자 증가율이 모두 높았고, 고용안정성 제고 및 임금격차 축소가 확인됨
- 특히 유망식품분야는 최근 5년간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고 시나리오 전망에서 확인하였듯이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줌
-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차원의 규제는 지속되어야겠지만 신성장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있는 규제완화 및 식품산업 육성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○ 정책방안1: 유망식품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- 정부는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,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음
- 하지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 ⇨ 식품업체들의 정책 체감도 낮음
-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필요
- 중소기업은 식품대기업에 비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이 낮고 높은 유통비용, 낮은 제품신뢰도 등으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⇨ 대중소기업 간 격차확대를 방지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지원을 강화할 필요

○ 정책방안2: 식품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맞춤형 지원 강화

- 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은 재정뿐 아니라 기술력,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
-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융, 창업기업지원, 기술, 인력, 수출 등 다수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음.
- 대부분의 정책이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한 결과 정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소액 살포식 지원보다는 기업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

○ 정책방안3: 유망식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

- 규제개선을 통해 유망식품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,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규제가 다수 존재
- 식품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모하고 식품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
- 관련 협·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취합 후 정기적으로 기준을 제정·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

○ 정책방안4: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

- 유망식품은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IT,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와 접목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
- 유망식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·분석자, 시장분석가, 재무 및 마케터 등 우수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
- 인력수요 조사를 통해 유망식품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·교육시스템 구축 필요. 끝.